

세계

중국, 대두산업 동향과 전망

2003년 중국은 2,070만톤이라는 기록적인 물량의 대두를 수입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능가한 세계 최대의 대두수입국이 되었다. 한 때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국이던 중국은 이제 절반 정도의 수요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대두의 국내 생산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대두 총수요의 증가는 이러한 생산 증가를 능가하였다. 대두의 식용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은 국내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소요된다. 대두유와 대두박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연간 수입량은 2001년에 1,000만톤을 넘었고 2003년에는 2,000만톤을 상회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수입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두유 교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단기적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두 및 대두가공품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미국 대두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호주, 와인산업 동향과 전망

고품질의 백포도주용 품종이 계속해서 전체 신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품질 백포도주용 포도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고품질 적포도주용 포도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와인의 국제시장은 고품질 와인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품질 와인에 대한 국제 수요는 일인당 소비의 증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와인 소비국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일인당 소비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독일은 최근 경제상황의 여파로 단

기적으로는 와인 소비가 감소할 전망이나 신흥 와인 수출국의 시장 점유율은 적포도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와인(약 1,400만리터)의 67%가 수입산 포도주이다. 향후 5년동안 한국의 와인 소비는 연간 평균 11%씩 증가할 전망으로 이들 대부분은 수입산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한국의 와인 수입물량의 40%는 프랑스산이며, 호주는 미국, 이탈리아, 칠레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로 수입물량은 6% 수준이었으나, '03~'04년에는 한국에 대한 호주산 와인의 수출은 67% 증가하였다. <자료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축산업 세계화의 비용편익 분석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시장의 세계화로 인한 편익이 고용창출, 소득증대, 비용감축, 선택가능 소비재의 증가 등의 형태로 가축 생산업자, 무역업자, 가공업자, 공급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는 가격 하락과 식품규정 강화에 따른 상품 품질향상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O는 전 세계의 축산시장이 질병의 발병과 상품질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된 축산시장이 생산업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체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예로 구제역, 조류독감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여 발병하는 전염병의 경우, 전 세계시장뿐만 아니라 각 국가·지역내 시장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이러한 문제는 소규모 생산농가·무역상에게는 대처하기에 역부

족인 실정이다.

FAO는 축산시장 세계화로 인해 불거진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회원국 원조 프로그램을 제안 중에 있다. FAO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축산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공적·사적 영역을 떠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료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1년의 주요 품목의 생산 및 가격 변화

2004년 과수 재배면적을 보면, 2003년 대비 포도가 8.6%, 배는 4.5% 감소하였으며, 사과와 키위는 각각 1.1%와 14.2% 증가함. 생산량은 포도와 사과가 각각 전년대비 7.7%와 2.2% 감소한 반면, 배와 키위는 각각 42.6%와 30.0% 증가함.

FTA에 따른 폐원지원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는 포도와 키위, 복숭아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생산기반 축소와 작목전환 등으로 농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요 품목의 가격은 FTA 발효 이후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사과와 배의 가격이 크게 높아짐. 과실류의 가격 상승은 기후여건이 좋아 과실의 품질과 당도가 높아지고, 홍보 확대로 소비가 확대된 데 기인함. 돼지고기의 경우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광우병에 따른 쇠고기 소비대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함.

그러나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계속 낮아지고, 수입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로 인한 국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있음. <자료출처: 농협조사연구소>

“쌀관세화유예연장 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즈음하여 농민단체들, 입장 발표

여야의원 148명이 공동 발의하여 5월12일부터 35일간 실시되는 ‘쌀관세화유예연장 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즈음하여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쌀 협상 중에는 협상중이라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협상 후에는 국제적 신뢰를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준동의권은 사실상 없는 것이며 쌀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영원히 해소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이면합의를 포함한 쌀협상 전문을 솔직히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하며 둘째, 이번 국정조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전문가와 농업경제학전문가가 참여하여 예비조사가 심도깊게 진행되어야 하며, 농업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적극 포함될 수 있을 것을 요구했다. 셋째, 특히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만 열람하고 복사나 메모도 불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야합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농민연대 대표단은 열린우리당(조일현 국정조사위원장)과 한나라당(이방호 간사)을 만나 농업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명단을 전달하고 국정조사가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㉞